



나라위헌 직선제나 당리당략 직선제나!恨들이 직선제 두고두고恨된다!

내 손으로 독재자를 또 만들 것인가!

대통령직선제의 허점을 파헤친다

야당의 「허튼소리」에 속지말자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는 야당의 주장은 「내 손으로 독재자를 만들자」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 대통령직선제가 말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현실적으로 볼 때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치고 독재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다. 오늘날 지구상의 국가 중에서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46개국인데 그 중에서 제대로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의 헌정사도 이들과 똑같이 독재의 길을 걸었다. 대통령직선제는 제도 그 자체에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원적으로 독재자를 만들어낼 요소가 많이 잠복해 있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스스로 「민선 황제」가 되어 대통령이 신격화가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선제는 현실적으로 민주화의 길이 아니라 독재화의 길이 선동임을 알아야 한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는 야당의 선전은 정권야욕을 감춘 선동임을 알아야 한다.

선거마저도 못치를 위험성 커

대통령직선제는 이같이 「民選황제」를 뽑는 싸움이기 때문에 「전부를 차지하느냐, 전부를 잃느냐」하는 사생결단의 대결이 되고 만다.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져 자칫하면 선거마저도 치르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른다. 불과 2~3천명의 선동으로 빚어진 仁川사태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의 별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구석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좌경세력들이 어떤 것을 벌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71년 선거 때 전국유세는 240회 었던바 수십만의 인파가 모이는 수많은 유세장에 비취볼 때 유세장의 폭력위험은 너무나 크다. 북괴의 위험한 책동에 비취볼 때 유세장의 폭력위험은 너무나 크다.

극심한 지역감정 유발로 국론분열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각 후보자가 출신지역의 몰표를 의식, 선동이나 흑색선전을 통해 지역감정을 극도로 자극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비취보아 남북으로 반조각난 나라가 그것도 부족하여 동서로 분열될 위험성마저 없지 않다. 이땅에 또다시 지역감정의 극심한 충돌사건이 벌어진다.

선거망국론이 대두될 만큼 국력을 낭비

대통령직선제는 우선 이겨놓고 보자는 발상에서 막대한 선거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선거인플레이를 유발하여 그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는 실로 막심하다. 지난 71년 대통령직선제 경우만 보더라도 85년도 화폐가치로 선거비용이 무려 2천여억원이나 투입되어 국민 모두 선거후유증에 시달렸고, 한해동안 물가가 46%나 올랐던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직선제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다

이와같이 대통령직선제는 선거과정에서부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선거를 치르고 난 후에는 독재화로 흐르기 때문에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하면 민주화의 길이 멀어짐은 물론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민주정의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55-2

1986. 8.

(당원용)

내각책임제를 바로 알자

정국불안 운운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내각책임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각제를 하면 항상 정국이 불안하고 여당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내각책임제의 본질과 실정을 무시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안정과 번영의 상징—내각책임제

양당제가 정착한 나라에서는 내각책임제가 정국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없다. 다당제 국가에서라도 서독처럼 「건설적 불신임제」라는 보완장치가 있으면 정국 불안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2차대전후 정국안정을 가장 장기간 지속해온 서독, 영국, 일본은 모두 내각책임제 국가들이다.

내각책임제가 국가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실정을

모르는 말이다. 영국은 1·2차 대전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전승국이 되었으며, 내각제 국가인 이스라엘은 아랍국들과 4번 싸워 4번 모두 승리했으며 오늘날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했던 제 2공화국에서 정국이 혼란하고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민주당 정권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집권한 것이 아니라 4·19 의거로 학생들의 등에 업혀 집권한 허약한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선거결과는 공정한 경쟁에 달려있다

내각책임제가 여당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말하는 것은,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치졸한 발상이다.

선거란 공정한 경쟁과 자유로운 분위기의 보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선거가 더욱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법도 개정할 작정이다.

이것은 성숙한 국민의식을 수용, 민주를 꽃피우려는 우리당 「민주화장정」의 시작인 것이다. ■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정권투쟁, 1인 장기집권과 독재의 영원한 추방

우리는 왜 內閣制를 선택했는가!

내각제만이 가장 확실한 民主化의 길이다

우리당이 내각제를 택한 이유

권력분산으로 독재를 막을 수 있다

내각제가 되면 독재라는 단어는 우리의 정치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제아무리 1인 장기집권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도 권력이 분산된 내각제에서는 그 욕망을 채울 수 없는 것이다.

비로소 우리 40년 헌정사 비극의 장본인이었던 1인 장기집권과 독재가 제도적으로 방지되게 되는 것이다.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내각제는 민의의 추이에 민감하며 따라서 책임정치 구현에 가장 효과적이다.

여론이 정부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면 그 요구는 즉각 국회에 반영되며 따라서 잘못이 인정된 내각은 책임을 지고 퇴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권교체가 순조롭고 용이하므로 사생결단식 정권투쟁이 사라진다

내각제 아래서는 정권교체가 순조롭고 용이하므로, 야당은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정권투쟁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되며, 여당도 죽어도 정권을 못내놓겠다는 식의 대응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국민의 발언권이 강화된다

내각제 아래서는 정치의 중심무대가 국회로 옮겨지며 모든 정책이 대통령이란 한 사람의 손이 아닌 여·야 국회의원 여러사람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게 되므로 야당과 국민의 발언권이 커지게 된다.

대통령제 아래서 야당은 통치의 속내를 결눈질할 기회조차 거의 없지만, 내각제 아래서는 권력의 주체가 국회의원만큼 야당도 항상 권력의 실체와 흐름을 지켜보면서 수권능력을 키울 수 있다.

우리의 사회발전에 가장 알맞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급속히 다원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서구 선진사회와 같이 고도로 산업화된 다원사회의 양상이 심화될 것이다.

이와같은 다원사회에서는 수시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한데, 경직성이 높은 대통령중심제 하에서는 그것이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러나 내각제는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에서 각기 다른 이익집단의 이익조정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과생되는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내각제만이 가장 효율적이란 것은 널리 인정된 사실이다.

내각제는 시대적 국민적 요청이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민족사의 흐름은 우리에게 내각제의 길을 걸을 것을 엄숙히 명령하고 있다.

내각제야말로 사생결단식 흑백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조화로운 화음의 정치이며, 국민화합과 평화로운 민주화 과정을 보장하는 시대적 선택인 것이다.

우리 모두 내각제 헌법으로 국민적 염원인 민주화를 이룩하고, 화해로운 민주발전을 통해 여·야 그리고 국민 각계각층의 공존 위에서 4천만 겨레의 힘과 슬기를 결집시켜 21세기를 한민족 웅비의 세기로 승화시켜 나가자. ■